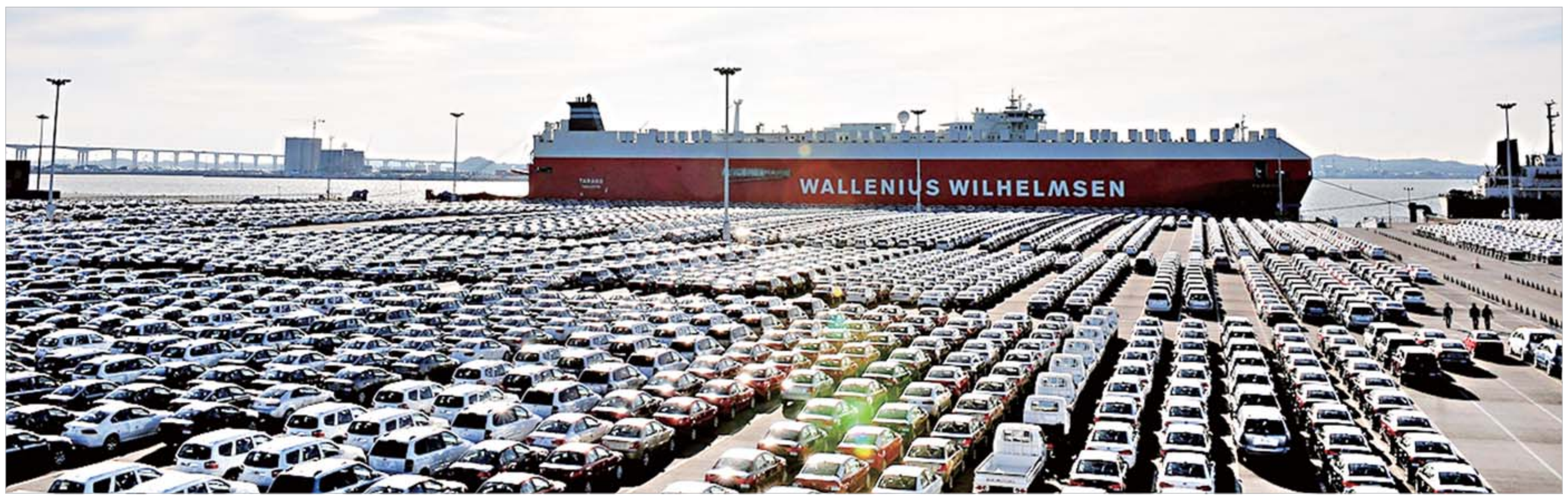
들리는 기쁨! 새로운 인생!
국제보청기
SINCE 1982
광주본사 062) 227-9940 서울지사 02) 765-9940

전남매일

행복 위에 지은 집! GOLD CLASS

제7906호 대표전화 062-720-1000 jndn.com (음력 5월 9일) 2018년 6월 22일 금요일


미국 수출 길에 오른 기아자동차 생산 차량들이 경기도 평택항에서 줄지어 선적을 기다리고 있다.

미국 수입차 25% 관세 폭탄 기아차 광주공장 직격탄 맞나

생산량 40% 대미 수출…손실 불가피
협력업체 도산 우려 등 지역경제 타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차에 대해 최고 25%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어서 국내 자동차 수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특히 미국시장 수출비중이 40%를 넘어서는 기아차 광주공장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미국 무역확장법'이 현실화하면 국내 자동차 수출차량은 최대 25%까지 관세가 부과될 수 있어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기아차는 국내 완성차 업체 중 미국 수출비중이 가장 높다. 지난해 대미수출 완성차 대수는 선적 기준으로 28만7,401대다. 기아차 국내 전체 생산물량의 28.7%다.

이에 따라 기아차 광주공장은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하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연간 약 60만대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전체 생산량 중 37.1%를 미국시장에 수출한다. 지난해에 49만2,233대를 생산해 18만2,863대를 미국에 선적했다.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쏘울·스포티지·카렌스를 생산하고 있다. 미국에 수출되는 쏘울과 스포티지 전량은 광주공장에서 생산한다. 지난해 광주공장은 쏘울(쏘울EV포함) 10만9,146대와 스포티지 7만3,717대를 미국에 수출했다.

그러나 추가관세가 부과되면 쏘울은 한화로 약 500만원의 가격상승이 예상된다. 기존에 지켜 온 판매부문 '1위 자리' 수성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당장 가격경쟁력 상실로 미국시장 판매가 급감함은 물론, 기아차 광주공장의 생산라인 운영에도 적신호가 켜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전후방 파급효과는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아차 광주공장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는 광주시의 경제에도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아차 광주공장이 광주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한 수준이다. 지난 2016년말 기준 광주지역 제조업 종사자 10%, 총생산액 32%, 총수출액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아차 광주공장의 지역 내 1차 협력업체 50여곳을 포함해 이들과 거래하는 수백개의 2·3·4차 협력업체의 물량감소와 매출타격도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영세한 지역업체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기아차 광주공장의 급격한 물량감소는 자칫 영세중소협력업체의 줄도산마저 우려되고 있으며, 결국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적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수입차 관세부과 움직임을 자동차 산업이나 개별기업 문제로 여기지 말고 지역경제 및 서민 일자리 즉 민생경제 이슈로 보고 정부의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미애 기자

■ 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발표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 1차 수사·종결권

'자치경찰제' 내년부터 서울·세종·제주 시범실시

앞으로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은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게 된다. 또 검찰의 직접수사는 필요한 분야로 제한된다.

정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합의문을 전격 발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문을 낭독하고,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각각 서명했다.

정부는 검찰과 경찰이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 수행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 설정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검찰은 경찰의 수사사건에 관한 송치 전 수사지휘가 폐지된다.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가지며, 검사의 1차적 직접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된다. 검사는 경찰과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검사 등의 비리사건, 부패·공직자 범죄, 경제·금융·선거범죄 등에 한해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고소·고발·진정이 검찰에 접수되면 경찰에 이송해야 한다.

정부는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특정사건 직접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경찰수사의 보완수사 요구권 ▲경찰이 정당한 이유없이 보완수사 요구 불응시 직무배제·징계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 시정조치 요구권 ▲시정조치 불응 시 송치 후 수사권 등의 통제권을 가진다.

반대로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범죄혐의에 대해 경찰이 적법한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은 지체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했다.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유지된 것이다.

정부는 경찰 권한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여러 가지 과제를 줬다.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마련할 자치경찰제를 2019년 안에 서울과 세종·제주 등에서 시범 실시하고,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전국에서 실시하도록 적극 협력토록 했다.

이 총리는 담화문을 통해 "수사권 조정논의에서 정부의 시간은 가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 왔다"며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더 나은 수사권 조정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남도한바퀴' 외국인 전용 특별상품 운영

24일부터 보성·여수·목포 등 관광지 투어

전남도가 무안국제공항 국제선 정기편 취항 확대에 발맞춰 '외국인용 남도한바퀴' 특별상품을 구성, 24일부터 운행한다.

외국인용 남도한바퀴는 외국인 방문객들이 쉽고 편하게 남도여행을 즐기도록 무안공항 국제선 도착 시간과 연계해 매주 일요일과 수요일 주 2회 당일 코스로 운영된다.

일요일에 떠나는 '초록빛 마음 충전 보성·여수 여행'은 푸르른 물결이 펼쳐진 보성 녹차밭에서 지친 마음을 치유하고, 로맨틱한 불빛이 넘실대는 여수에서 해상케이블카와 간장게장·장어탕 등 남도음식과 감미로운 버스킹 공연에 흠뻑 빠져볼 수 있다.

수요일에 운행되는 '아름다운 항구도시 목포여행'은 근대역사와 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한 목포근대역사관·성옥기념관·연희네슈퍼 등 목포역 오거리 투어와 꽃게살비빔밥·바지락회 등을 맛볼 수 있다. 화려한 빛깔로 수놓아진 춤추는 바다분수 공연도 즐길 수 있다.

내국인은 외국인과 동행한 경우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1인당 9,900원에 광주 유스퀘어, 송정역과 무안국제공항에서 탑승할 수 있다.

누리집(www.triptokorea.com) 또는 전화(02-332-8946)로 사전 예약하거나, 탑승지에서 승무사원에게 직접 탑승권을 구매해 이용할 수 있다.

'남도한바퀴'는 개별여행객이 늘고, 대중교통 접근이 취약한 전남지역 관광지의 연계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2014년부터 운행하고 있다. /정근산 기자